

AUTHOR 홍치모

TITLE 종교개혁의 원인

IN 개혁주의

vol. 24 (October, 1967): 4-8, 36

히 죄인으로 낙인 찍어 버리고마는 우리
들 관념을 버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죄
는 하나님에 하실 일이고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죄인들을 견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
성 하다는 성경 말씀처럼 죄인 중의 죄
수에게 사죄의 은총을 받는 그 신앙은
영원한 것이다.

세계로 황금만능사상을 개선하자라는 것
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
는 인간다운 생활이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경제생활이란 돈과 돈이
면 다 된다는 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돈이면 다 되는 풍조가 오늘날
교회에까지 스며드는 것은 슬픈 일이라
하겠나.

비례로 출신과 학벌로서 한 사람을 평
가하는 관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가 어디서 공부했건, 그가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졌건,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신
입하고 믿어주고 키워주는 아량을 갖도
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파벌 의식같은 못된 우리 선민의 유산을
완전히 뿌리뽑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는 것이다. 우리는 이 파벌 때문에 온갖
수모와 고난을 받아왔던 것이 아니던가?
다섯째로 근로정신의 결핍이다 할 것
이다. 이렇게 못사는 나라에서 할 수만
있으면 놀려고 한다. 쉬는 것과 노는 것
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여섯째로 열등감과 우월감에 대한 개

선이다. 남에게 대하여 공연히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시골어치도 안되는
"자기것" 때문에 우월감도 갖지 말자.
우리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인물들이며 하나님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하겠다.

일곱째로 자기가 소속한 사회 참여를
거부하는 관념이다. 보다 나은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결핍하면
이렇게 해서야 어찌 살겠느냐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독차 사회질서마저 파괴하는
풍조는 비격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로 아직도 우리 민족 언저리에
뿌리박고 있는 사대주의 근성을 버려야
할 것이다. 외국인이라면 무조건 쌍수로
환영한다든지 외국산보다 우수한 국산품
도, 국산품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
는 마위가 있는 한 근대화란 요원한 구
호가 되저 않을까 생각한다. 아홉째로 자
기의 신앙관,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세
계관 등의 결여로 인한 우유부단한 관념
의 개선이다. 자기의 신앙관, 인생관,
세계관이 확립되어 있다면 타인이나 주
위환경에 구애 받을 필요가 없이 인생
을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갈 것으로 안다.

종교개혁의 450년을 맞아 바르지 못한
우리들의 관념들을 개선하는 여려가지
민을 살펴 보았거니와 우리가 잘못된 관
념들을 과감히 개선하는데 주저하지 않
을 때 신앙생활의 명랑화와 더불어 참다
운 조국의 근대화도 이룩되리라 믿어 의
심치 않는다.

□연 재□

나는 소련에서 하나님을
보았다...이 종 철 역...(23)
세계를 향한 기독교의 오늘과
내일.....오 병 세...(27)
순교의 씨는 싹트다
.....이 종 철...(37)

□이달의 소식.....(16)

.....문학노트

◇수 상◇
눈뿔집 처녀... 김 성 린...(30)
苦 像.....S. Y.(29)
가을의 의미... 김 남 식...(33)
◇일 기◇
절망과 소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기 다...(34)
◇시
할말의 열매가 익듯이
.....최 두 호...(34)

종교개혁특집

종교개혁의 원인

—Banton 교수의 연구를 중심으로—

홍 치 모

- ◇...오는 10월 31일은 우리가 항...◇
- ◇...교개혁을 한지 450돌이 되는...◇
- ◇...기념일이다. 이를 앞두고 여...◇
- ◇기 종교 개혁의 원인과 당시의...◇
- ◇...사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1517년 10월 31일 Martin Luther
가 로마 교회의 법황(法皇)에게 항
의하는 95개 조문을 Wittenberg 대학
교회문예대 게시판에 단 450주년
의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다시금
Luther의 개혁운동의 원인을 일고
(一考)해 보는 것도 개혁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붓을 이어 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Luther의 조
국인 독일을 위시하여 유럽 각국에
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Luther의 개
혁운동 4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대체적으로 거행되리라 짐작하거니
와 우리 한국에서는 지난 6월 미국
Yale 대학 신학부 교회사 교수로 근
40년간이나 봉직하다가 은퇴한 R.
H. Bainton 교수를 초빙하여 Y. M.
C. A. 강당에서 강연회를 가진 바 있
다.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Bainton
교수와 만나 짧은 시간이나마 종교
개혁사 연구에 관해서 면담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Bainton 교
수는 귀국후에 즉시 필자에게 4, 5
권의 저서를 보내 주셨다. 그에 대
한 감사의 표시로서 본론에 들어가
기 전에 짧은 소개나마 우선 Bainton
교수의 연구 경력과 그의 인물됨을
소개하기로 한다.

R. H. Bainton 교수는 1894년 3월
영국에서 Herberd Bainton 목사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그의 선친은

회중파교회(Congregational Church)의 목사로서 청교도의 정신적 유산을 지닌 경건한 신앙과 매력적인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특히 평화를 사랑하는 불굴의 신념은 Bainton 교수가 4세 때 전가족이 캐나다의 밴크바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콜록쓰사로 옮겨 왔다. 이곳이 그의 제 2의 고향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Bainton 교수의 일가가 정든 모국(母國)이었던 영국을 떠나 캐나다와 미국으로 전전류류(轉轉流流)하게 되었던 원인은 다름 아닌 그의 부친이 철저한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이었다. Bainton 교수의 부친이 영국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Boar 전쟁에 반대함으로써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회중파교회내에서도 Herbert Bainton 목사에 반대하여 적지 않은 이탈자가 생기게 되었으므로 보아 전쟁이 일단 종결되자 전쟁 도중 회중파교회를 이탈해 나갔던 목사와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를 염원한 나머지 자신은 눈물을 머금고 영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Bainton 교수는 1914년 Whitman College를 졸업하자 곧 Yale 대학교에 들어가 1921년에는 철학박사 학위를 얻었다. 그 후 Bainton 교수는 40년간 한결같이 모교에서 교회사를 강의해 왔던 것이다. 부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평화주의에 대한 신념은 드디어 세계 제 1차 대전 때 전부원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고 차진 미군적십자 퀘이커단(Quaker Unite of the American Red Cross)에 입단하여 비전투원으로 활약하였다. Bainton 교수의 이와같은 신념과 생의 태도

는 종교개혁 당시 절대적 평화주의와 반정치적 태도로 말미암아 국가권력은 물론 정통파 교회들로부터 부단히 박해를 받아 기꺼이 순교한 재세례파(再洗禮派)의 정신적 유산의 일부분을 계승한데서 기인된다. 그의 평화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은 그의 연구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더우기 제 1차 세계대전의 종군을 거부한 이후부터 한층 더 종교적 자유와 양심의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가하는 법적 압력 내지 강제성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교회가 표방하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의 제문제를 깊이 연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종교적 자유와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탄압과 박해를 받아 지금까지 역사의 이면에 가리워져 있었던 재세례파측에서 Calvin이나 Luther 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고귀한 정신을 발굴해 내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비단 한 교파의 역사적 개별적인 연구일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전체적 모습을 보다 넓은 시야에서 통일적으로 고찰하려고 기도하였다는 점에서 우선 그의 공헌을 인정하여야 하미치 하해야만 할 것이다. Bainton 교수는 Luther와 Calvin의 계통적 개혁노선 "을 고찰할 수 있는데까지 힘을 기울이는 한편 개혁당시 다양성 있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소위 좌파(Left Wing)들의 활동도 증시하면서 양자 사이에 얽혀져 있던 모든 문제를 하나 하나 파헤쳐 가면서 개혁운동의 복습적인 통일성을 찾으면서 종교개혁 운동의 역사적 전

개를 追求하여 마치 않았던 것이다.

II

Bainton 교수는 40년간에 걸친 지나간 연구생활에서 자신의 종교개혁사 연구를 압축시키면서 집대성한 저서를 두권 발간하였다. 1952년에 "16세기의 종교개혁"(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과 1956년에 간행한 "종교개혁의 시대"(The Age of the Reformation)이다. 저자는 상기 저서에서 Bainton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종교개혁의 원인을 고찰하려 한다. 종교개혁이 발생한지 450년이라는 장구한 기간동안 신구교를 막론하고 종교개혁의 원인을 구명 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정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도달한 학자들의 결론을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주로 세 학파의 혜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는 도덕설이요, 둘째는 교리설이요, 마지막 셋째는 사회설이다. 이하 도덕설에 의한 개혁운동의 동인부터 논하기로 한다.

종교개혁의 기본적 원인의 하나가 개혁당시의 로마교회가 극도로 타락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를 정상적인 제도로 복귀시키려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뜻밖에도 신구교의 분열을 초래시키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구교측에서는 신교도들의 개혁이란 지금까지 로마교회에서 준수해 내려오고 있던 모든 규칙을 하나씩 폐지시킴으로서 스스로 오히려 법을 남용한자

가 개혁을 단행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니 있다면 그것은 로마교황도 아니요 그 밑에 있는 추기경(Cardinal)이나 주교들이 아니라 바로 루터의 일과들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들이 반박받고 있는 이유는 즉 성직자들의 축첩문제에 있어서 로마교회는 끝까지 독신제도를 고수한데 반해서 루터파에서는 성직자들의 결혼을 허락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을 그대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구교측 역사가들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초기의 신교도들이 자신들의 과도한 도덕적 정열로 말미암아 교회에 복종의 한계를 넘은 행동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거니와 여하튼 Luther 당시의 로마 교회가 도덕적인 면에서 타락의 절정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당시 추기경들이 모여서 작성한 각서 즉 1538년 밍황 바울 3세에게 보내는 "교회의 개혁"을 위한 건의서는 단적으로 로마교회의 타락을 입증해 주고 있다. 추기경들이 제출한 건의서의 내용을 分析할 것 같으면 다음 4개항목 (1)교구와 성직자 임명문제, (2)교회의 재정문제, (3)사법에 관한 문제, (4)성직자와 일반신도들의 도덕생활등으로 구분되어 있거니와 여기서 제일 크게 문제시 하였던 것은 교구에 대한 성직자 임명문제와 교직자들의 성적타락 그리고 반비례 현상으로 증가해가는 교회재정의 지출과다와 수입의 멸소를 여하히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우선 성직자들의 교구 임명문제에 있어서 영웅하게도 이방인들이 교구에 파송을 받아 관리자가 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는 사

설 그리고 그와 같은 이면(裏面)에는 성적매매(聖職賣買)가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적자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임명받아야만 했다. 다음은 루네쌍스시대에 로마시에는 창녀들이 특실거리고 있어서 성적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으니 로마시로부터 추방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남세의 의무로부터 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것은 성적자들의 지나친 사치생활과 사회가 빈번하게 가졌던 축제일 그로 인하여 소비하는 막대한 돈에 대해서 Luther는 고발하면서 통렬하게 비난하였다. 로마법황청의 구기항들이 교회의 개혁안을 제시하였지만 그와 같이 교회의 병폐를 여하히 해서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구제안도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미 기술하였거니와 성적자들의 성적 타락을 막기 위해서 한갓 종래의 주장대로 독신생활만을 강조하고 또한 그것을 고수하라고 소리쳐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만큼 로마교회의 심각한 고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Luther의 비난은 로마 교회의 성적자들의 표면상의 생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Luther에게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로마교회의 교리였던 것이다. Luther 보다 앞서 출발하였던 모든 선구자들은 주로 로마교회의 생활변만을 비난하고 공격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Luther야말로 로마교회의 중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연옥설(煉獄說) 및 면죄부판매(免罪符販賣)에 대해서 예리한

공격을 가함으로써 개혁운동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Luther의 개혁 운동의 동기는 어디까지나 종교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견해일 것이다. 모든 신교역사자들은 거의가 다 이 견해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지지하고 있다. 개혁운동의 동장이 되었던 면죄부판매(免罪符販賣)와 연옥설(煉獄說)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요, 행동일뿐만 아니라 Luther가 발견한 구원론(救援論)과 속죄론(贖罪論)과는 판이한 것이었다. 본래 로마교회에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것은 십자군 운동때였다. 십자군에 종군할 수 없는 사람들도부터 일정한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그들이 종군하지 못한 것을 교회가 대신하여 책임을 지고 신에게 간구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책이 펴이냐 좋은 성과를 얻게 됨으로써 그 면죄부판매의 범위를 확대시켜 교회건축과 병원의 신설 그리고 교양공사까지도 그 조목에 사업시킴으로서 제원의 확보를 견고히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루네쌍스시대에 이르자 면죄부판매의 사상이 혼들리게 되었으니 종래까지의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 신자가 지상에서 받을 형벌에 한해서만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였지만 형벌에 대한 용서는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에게도 적용되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죄악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다. 요는 과감한 제인이 Luther의 신경을 자극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죄의 용서물을 받을 때 앞서간 성인들의 덕과 공로를 힘입을 수 있

다는 로마교회의 실제적 생활상의 모순은 물론 그와같은 모순된 생활을 자행하도록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릇된 교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할 수가 없었고 로마교회가 가르치고 또 실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씩에서 보실 때 가중하기 짝이 없는 것일 것이라고 확신하여 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로마교회 사가들 중에서도 Luther의 개혁운동의 동기를 교리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없지는 않으나 그것은 Luther가 중세 스콜라철학에서 이탈하여 개혁당시 사조(思潮)로서 정신계를 지배하고 있던 옥캄주의(Occamism)에 감염(感染)되어 개체주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란을 피우기 까지 하였다고 말한다. 물론 Luther가 Erfurt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Wittenburg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던 당시의 철학사조가 Occam의 철학의 영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으나 Luther는 결코 철학에 흥미를 가졌거나 그의 궁극적인 관심이 Rateie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Sola Scripture)만이 그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는 말에 불과하다.

III

끝으로 종교 개혁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인설(社會的起因說)이다. 이것을 다시 세분할 것 같으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계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역사가들은 이것을 농민과 귀족의 투쟁의 결과로 보고 있으며 Luther 보다는 Thomas Miuizer와 농민전쟁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영

원에 두고 구명할 문제는 당시의 일반적 정세가 변화를 겪고 있는 격변기 즉 역사적 전환점(Historical Furning-point)에 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종교개혁의 사회적 배경을 고찰함에 있어서 Bainton 교수는 W. K. Ferguson 교수가 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중세 그 자체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면에서 주로 봉건적, 교회적이었으며 그 기반을 농업에 두고 있던 문명이었으니만큼 그와 같은 문명사회에서 전혀 새로운 문명사회 즉 국민적, 도시적, 세속적, 평민적이며 그리고 그 사회내에서 작용하고 있는 불가항력적(不可抗力的) 힘이란 중세의 낡은 농업경제를 몰아내고 새로운 상업경제와 산업사회를 건설케한 화폐(Money)였다.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문명사회로 변천하여 가는 도중에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한갓 구리돈으로 행세하던 그것이 화폐로서 장차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내포하고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줄이야 상상 이외의 것이었으나 중세말에 처한 교회는 이 마력앞에 굴복하였던 것이다. 재정난에 허덕이던 로마교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재정난을 타개하는 데 발버둥쳤을 때 이외에도 맹한 장애물에 그만 부딪쳐 좌절상태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다 잘 아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을 흔히 바빌로니아 유수(Babylonian Cupitivity)(1309—1377)라고 부르고 있거니와 이때 로마교회는 정치적으로도 신흥국민국가에 대항할만한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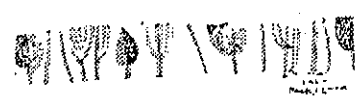
頌 詩

한알의 열매가 익듯이

최 두 호
<전보니열설교교사>

스스로 온 마음들을 엮듯
새월은 강물 소리 같은
울울한 환희와 희열을,
여기
또 하나의 열매가 익듯이
우리의게도 부딪쳐 온다.

푸름한 하늘을 치받고
언연한 갈대들의 눈짓을 마음에 담아
열매는
아아라라 자랑스런 함성을 포개는데.....
우리 무익으로 그 총명한
눈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네 마음길에
채워진 술한 한술의 노래를
흘려 볼 수가 있을까.
가을은 우리의 뒷안길에 서서



시련 살아 아직도 술한 절차가 흥해
처럼 막고 서 있다.
주실 것만을 믿고 싶다.

2월 ×日
새벽부터가 글러 먹었다. 가족 모두가 나에게 조금씩은 미운 감정을 풀어낸 날이었으니까.

한 일 없는 오후 「색카피」의 「허영의 시장」과 덩달다. 인생의 허영심을 다룬 이 소설에 갑자기 지저분한 오장육부이 구실을 탓해 본다.

“꼭 친당만을 가기 위해 예수쟁이가 된다는 건 허영이다.”
라던 J가 생각킨다. 그러나 난 이 허영을 죽도록 부러야겠다.

2월 ×日
3일간의 학생회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 나의 기도 할 차례, 뒤에 알고 보니

MEMBER가 짜여져 있는 시간에 내맡은
진 공간이 무서워 정신없이 더듬거렸는
데 정확히 따지면 S의 차례를 가르쳤다고,
가만히 집에 앉아 분해서 마구 웃
었다.

밤새 기도 공부에 열중했던 J에 비
해 준비없이 너무나 경황없는 기도였는
데, 그런대로 들을만 했다고 엄마가 그
리신다. 부끄러웠으나 자신을 얻은 것
같다.

5월 ×日
엄마가 저절로 잊어 버렸다. 왜 이렇게 마음 한구
석에서부터 신앙의 후퇴를 허락하고 마
는 걸까? 점점 내 행동은 타락 내지 세
속화 돼 가는 것 같다. 근처 B교회시대
에 배를 보았다. 어찌서 오늘이 나를 향
한 설교가 됐는지 모르겠다. 밀어야 할
러가는 나는 구름마 신자인가.....”

7월 ×日

비가 온다. 빗같이 가늘어 빠지고 뻗
질스런 비가.....허나 하늘을 바라보고
터지도록 고향치고픈 마음은 농민이 아
닌 나에게도 비의 고마움이 한없이 벅
찬 가슴에 밀려 온다. 모두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한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진 자식 같은 한국이 아
닐까? (이 뒤에 나의 예루이 들어 맞았
다. 지난 7월말의 수해 사태를 기억해
보면.

7월 ×日

A에게서 편지, 라고 하지만 태산목 한
알, 그것도 꾸겨지고 벌레먹어 뻥뻥
고찰것 없는 누린 낙엽 한 잎이 하루와
빈 생활의 구멍을 메꾼다. 지금쯤 모두
들 칠판을 마주하고 앉았겠지. 그러나
나는 무언가? 한가로움, 지극히 부의
비한 한가로움 앞에 전될 수 없어 하품
이 터지려 하고 있는데.....아무도 나
를 놀랭이라고 놀리질 않는다. 또 나에

< 8 페이지에서 계속 >

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황청 자
체내에서는 1417년까지 분열의 고
배를 마셔야만 되었던 것이다. 이
리하여 로마교황은 루네쌍스시대에
있어서 한갓 도시국가를 장악하고
있던 군소군주(群少君主)와 같은 처
지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으니 Luther
를 취급하였던 Leo 10세만 하더라도
Medicci가에서 범황청에 파견한
채무독촉자에 불과한 인물이었다.
그는 예술애호가요, 예술가들의 보
호자요, 투기자요, 사냥꾼이어서 라
틴시문을 즉흥적으로 읊조리는 바
람둥이와 같은 존재였고 현재 어느
카톨릭 사가는 말하기를 만약 Leo
10세가 사도시대에 있었다면 예
수님의 집을 지키는 문지기 노릇도
못할 저열한 인물이라고 평하고 있
는 것이다. 여하튼 종교개혁은 봉
건제도붕괴, 화폐경제의 대두, 도

게서 꼭 한 가지 「그걸」누구나가 아까
와 하지만 내신 나는 하품이 이렇게 무
박한 태도 어느 선생도 눈을 부릅뜨지
않는 내 주위를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
고 있어야 하더니.....

7월 ×日

영화 「순교자」를 보았다.
노인네와 병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
만이 남은 종교라 하였다. 젊은 이들은
제멋대로 생을 헤치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남은 자들만이 위로를 받기 위해 밀
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라 하였다. 「신은
없다.」 그리고 그들은 피로와 했으며,
집안의 잘방은 거기서 더 확대해서 방
황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인간의 태도
라고 보았다.

Mr. 김에 대해, 아니 우리 건방진 인
간 무리에게 하나님은 가소로와 폭소를
터뜨릴 것만 같다.

모순에서 때를 느끼는 현대인 속에
사는 나, 태초를 누리고코다.

시의 발생, 상업의 부활, 중앙집권
적 신봉국민국가의 탄생과 때를 같
이하여 추진되었으니만큼 그와같은
제운동의 요소가 복합적 통일을 이
루어 개혁 운동을 간접적으로 뒷받
침해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해도 좋
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운
동들은 어디까지나 개혁운동을 전
개시키는데 뒷받침은 되어 주었을
망정 그것들이 곧 종교개혁의 원인
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와같
은 세속적 제운동이 때로는 Luther
나 Calvin의 개혁운동에 도리어 장
해물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기억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의 절대
왕조로 군림하였던 Fudor 왕조라든
가 독일의 영방주의제도(領邦主義
制度)(Particularism)는 모두가 개혁
운동에 도움만 준것이 아니었고 시
간과 장소에 따라서는 개혁운동을
심하게 탄압함으로써 수많은 순교
자의 피를 흘리게 하였던 것이다.